

## 머리글

### I

사회학(社會學, sociology)은 사회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영역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영역을 통칭(通稱)하여 사회과학(社會科學, social sciences)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은 일반적이고 원리적인 측면과 개별적이고 영역적인 측면으로 대별(大別)될 수 있는데, 흔히 전자를 일반사회학(一般社會學)이라 하고 후자를 개별사회과학(個別社會科學)이라고 칭한다. 일반사회학은 협의적 혹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사회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회적 삶의 모든 현상을 총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거기에 반해 개별사회과학은 사회적 삶의 각 영역을 따로 따로 취급하는데, 예컨대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인류학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개별사회과학 내에서도 그 연구방법상 기술(記述)을 강조하는 기술적(descriptive) 사회과학과 분석(分析)을 우위시하는 분석적(analytic) 사회과학으로 양분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자의 방법은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을 강조하는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처럼 사회의 구조와 상호작용 및 발전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술하는 것이 있고, 정치학이나 법학, 그리고 경제학처럼 현재에 중점을 두면서 분석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II

사회학은 기술적인 것과 분석적인 것으로 양분할 때 기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학은 사회적 삶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명하여 그것을 기술하고 또 사회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제반 개별사회과학의 기초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이 단순히 사변적인 이론의 틀에만 머문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실제적인 적용의 측면을 지닌다. 그래서 이론

사회학과 응용사회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 우리는 거시사회학과 미시사회학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이 미시사회학과 응용사회학에 해당되는 각각각색의 사회학을 얘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경제사회학, 공업사회학, 의료사회학, 범죄사회학, 교육사회학, 지식사회학, 문화사회학, 예술사회학, 종교사회학, 역사사회학, 계통사회학, 비교사회학, 농촌사회학, 도시사회학, 가족사회학, 직장사회학, 청년사회학, 노년사회학 등이다.

사회학의 연구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그것의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방식이 사회학의 연구자들이 빠지기 쉬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를 협의에 있어서의 인문과학적 내지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를 이론적 사변의 틀에서 논의하며 사회의 성격을 언급하며 사회발전의 과정과 역사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사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사회논의에서 계몽주의를 거쳐 Hegel에게서 정점에 달했던 독일관념론적 사회관에 이르도록,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관에 나타난 방식이다. 물론 다른 개별사회과학과 달리 사회학은 어떤 철학적 원리를 그것의 이론적 기초로 삼아 사회를 탐구하는 것이기는 하더라도 그 학문의 대상이 사회의 구체적인 삶이요 또 사회의 실제적인 변동이므로 그 연구가 단지 사변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또 연구자의 직관적 파악에 그쳐서도 안될 것이다.

둘째는 사회를 실증적(實證的)으로, 또 그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의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지난 세기의 Auguste Comte가 '사회학'이란 용어를 쓰고 그것을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수립해 갔다고 하여 그를 '사회학의 창시자'로 칭하고 있지만 사회학은 이미 아무리 양보해도 西洋에서는 Platon과 Aristoteles, 東洋에서는 유가(儒家)사상에 있었다. Comte가 사회학을 운위할 때 그것은 실증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인 것이다. 그는 생물학적 방식을 사회학에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방법론을 사회학에 적용하므로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과 결론을 이끌어 낼려 했고, 또 수학적이고 통계학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사회를 정보분석과 처리에서 나온 결과의 틀에서

만 이해하려고 했다.

물론 사회는 구체적 실제의 현장이므로 그것에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학적 엄밀성과 통계적 명료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해 가능할지 모르나 사실 사회라는 것은 생물의 성질처럼 그렇게 단순한 발전구도를 갖고 있는 것도 수학의 원리처럼 그렇게 엄밀하고 명료한 논리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복잡다단한 인간의 삶의 현장인 것이다. 사회라는 것은 결코 관념론 철학처럼 사변적인 것도 통계학이나 생물학처럼 간단명료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 연구에 임할 것이 아니라 그 연구 대상인 사회의 정체성에 맞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는 우선 정적(靜的)인 대상이 아니라, 동적(動的)인 대상이다. 그리고 사회의 이동적 성격은 우선 Dilthey가 정신과학의 본질로 규명한 정신성과 역사성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개인처럼 직접적인 인격성은 지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인격성은 지니고 있다. 즉 사회는 정신성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는 공동체성 내지 집단성을 지니고 있다. 그 공동체가 Gemeinschaft적이든지 Gesellschaft적이든지 간에, 또 그 결집력이 강하든지 약하든지간에 사회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삶도 복잡한데 사회라는 것이 단순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 얼마나 복잡다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회이든지 역사적 단절 속에 있는 사회는 없고 삶의 계승과 문화의 전승 위에 과거와 접목된 가운데 존속하고 있다.

사회에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서 사회학은 신중히 연구되어야 한다.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들과 각종 단체의 관계, 사회에 내재해 있는 종교, 각종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 문화의 기류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보는 사회관을 검토하고 견해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의 성격과 구조, 변동과 발전의 추세를 밝히고 사회를 해석할 수 있다.

사회학은 자연과학에서처럼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진리를 표방하는 것

이 아니라 해석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 해석은 내놓을 수 있지만 Popper의 말처럼 선부는 개인의 주관적 예언과 예측을 던지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 III

이번호의 통합연구는 사회과학의 핵심인 사회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이 사회학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의 지평에 따라 학문의 토대와 방향, 기둥을 잡아갈 때 바르고 참된 사회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삶과 사회의 근본,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 의미를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과적으로는 허사에 불과하다. 말씀의 지평을 떠난 모든 사회학적 연구는 사회에 대해 만족할 만하거나 바른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런 연구는 사회를 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제한성에 기인한다. 그들은 우선 시공적으로 한정된 사회만을 주시할 뿐이지 영원과 초월, 그것의 사회에 대한 관계를 간과한다. 또한 현상과 정신성 정도만 볼 뿐, 사회의 영적 성격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심층을 도도히 흐르면서 사회의 성격은 물론 문화와 제도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영적 저류를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 사회학도는 인간의 죄성과 그것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한성에서 비롯된 통찰에만 근거해 있으므로 이들이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제시하는 응용적 측면과 대안들은 바르거나 정곡을 찌르는 것이 못되는 것이다. 일반 사회학의 본래적 목적은 사회와 사회 속의 인간의 삶을 바로 파악하여 보다 나은 사회의 비전들을 제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성숙하고 진전된 사회적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심령과 사회의 심층에 놓여 있는 영적 성격, 이를테면 죄성같은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단순한 현상적 제도나 법의 수정과 보완만을 얘기하고 사회에 대한 표피적 지식의 획득만 재촉하는 것이다. 그래

서 어떤 사회적 문제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혹자는 통제론(統制論)을, 혹자는 조화적 다원주의(調和的 多元主義)를 얘기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통제론은 사회를 법과 제도라는 방편을 가지고 권력이 인위적으로 다스려 보는 것으로 금세기 초까지 동서에 통용되던 사상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간섭주의에 빠짐으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사상인 것이다. 반면에 통제론을 폐쇄주의라고 몰아부친 Popper와 같은 이들은 바람직한 사회는 각인의 욕구나 견해가 다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존중되고 상호대립과 갈등이 합리적으로(Habermas의 논법에 따르면 상호통적 방식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지닌 열린 사회(Open society)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자유방임적으로 놔두었을 때 그것이 조화롭게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다. 오히려 법이나 제도로 막아주던 늑대의 본능(Hobbes 말에 의하면 'homo homini lupus')이 마음껏 되살아나 사회는 이기주의의 이수라장이 되며 부하고 강한자만 특권을 누리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일반사회학이 사회의 본질을 알고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도 그것은 연습의 몸짓에 불과하지 정답은 아닌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죄성과 그것이 주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나 역사가 인간의 프로그램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는 개인과 사회의 모든 악과 문제점들이 해결된 사회인데 그것은 그들의 처방으로는 어렵도 없는 것이다.

물론 성경도 이런 유토피아적 사회가 지상과 현역사의 차원에서 성취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경이 주는 사회학의 중요한 내용이다. 성경은 인간과 인간사회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담고 있다. 성경은 인간 삶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에 강그리 다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의 본질과 의미, 방향과 목적에 대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특히 다른 문제보다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해 율법과 선지서, 예수님과 바울은 많은 교훈들을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온전한 사회학의 전당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의 제 영역을 성경적 원리 위에 수립하려는 시도는 사회학을 다룬 이번 호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보민 교수의 원고는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사회가 무엇이며 사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Robert L. Maclarkey 교수의 글은 Dooyeweerd의 기독교 철학적 입장에서 사회학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Paul Marshall 교수의 논문은 세속적 사회과학의 방법 중 소위 조작주의(operationalism)에 대해 비판적인 글로서 심도 있는 학문적 비판의 시도가 되었다. 양승훈 교수의 글과 강수택 교수의 글은 사회운동과 사회변혁에 관한 글로 전자는 소위 '혁명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이기 보다 영적 개혁자라 했고 후자는 19세기 독일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적용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비판적 성찰을 가하고 있다. 이대환 선생의 원고는 개별사회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에서의 가치이론을 비판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자연가치의 본질을 규명하며, 토지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여튼 이보민 교수의 글과 Maclarkey 교수의 원고는 기독교 사회학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었고, Marshall 교수의 논문은 세속 사회학에 대한 비판의 안목을 주었으며, 양승훈 교수의 글과 강수택 교수의 글은 기독교 사회학의 적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대환 선생의 논문은 기독교 사회학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구현해 본 기도였다.

그밖에 우리는 현실적인 맥락을 부각시키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J. Kennedy 와 T. M. Moore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개혁방법」을 이재를 교수의 서평으로 실었으며, 또 D. Webster의 「그리스도인과 현대사회문화」를 장진호 선생의 서평으로 담아 보았다.

이 모든 분들의 글은 사회학의 길을 찾기 위한 한낱 연습에 불과한 몸짓들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사회학의 이론과 응용인지에 대한 답변의 시도들이다. 이런 시도들은 일반사회학자들에게서 처럼 인간의 경험과 사변의 지평에서만

나온 어설픈 시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빛’에 근거한 뜻깊고 유익한 시도들이다. 조국에서의 이런 기독교 학문수립의 작업을 도우려고 멀리서 옥고를 보내주신 Marshall 교수와 Maclarkey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 Maclarkey의 원고를 번역하느라 남모르는 수고를 한 오정수 교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사족과 더불어 마무리를 짓는다면, 참사회학을 할려면 아래를 보기전에 먼저 위를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얻은 조명(illumination)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아래동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없다.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낮은 곳의 답이 있다. 왜 자꾸 세상만 보자보자 하는가? 세상을 바로 볼려면 자꾸 위로 쳐다 보자. 위로 쳐다 봄은 피곤치 않은 은혜이다.

1992년 여름의 한복판에서  
편집인 전광식